

8 월 16 일 2026 년



회복과 새로운 부흥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속 사람을 강건케 (엡 3: 14-21)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완악함을 버리라”(마가복음 3:1-6)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게 되기에 안식을 범했다고 비난과 고발을 하려고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선한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며, 안식일을 잘 지키며,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악한 일, 즉 비난과 비판, 정죄함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이 아닌 죽이는 일, 즉 미움과 험담, 비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 마음은 미움, 험담, 정죄, 비난, 원망, 고소함으로 가득찬 선이 아닌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서는 노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번의 기회와 책망을 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여 모의를 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극도무도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잘못됨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려는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교만함, 선을 넘는 판단과 정죄함, 죄악됨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빛 앞에 나의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바로 보고 회개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선한 일,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용납과 사랑,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영어 예배 - 2부 영어 예배가 1시에 드립니다.

영어권 분들에게 알리고

초대해 주십시오.

3. 교회 대청소 - 8월 30일 주일예배 후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4. 창립예배 - 9월 13일 주일 오후 4:30분에

교회 창립 50주년 예배가 있습니다.

행사 및 모임

8 월	교회 대청소	8 월 30 일 (주일)
9 월	창립 50 주년예배	9 월 13 일 (주일)
9 월	각기관 월례회	9 월 27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8/16	8/23	8/30	9/06
대표기도	유 영민	이 강선	이 화선	정 병철
헌화성도	성 미숙	심 영민	손 정임	차 은희
봉사당번	사랑구역	믿음구역	각기관월례회	믿음구역

예배 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 경주	510-634-9374	정주환(소망공동체)
	유 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 영민	415-205-2631	박완주(헝가리집시)
	손 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김 영란	510-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한 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	12 주
성경 통독방	52 주

"감사하다. 좋다. 괜찮다"

삶을 살면서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애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다’라는 생각과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때론 힘든 시간이나 어려운 시기와 사건, 그리고 환경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삶을 걸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자리를 만나고 지날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또한 힘든 것이 단지 지나치는 한 과정이지라는 마음으로 대하고,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은데라는 생각을 하니 어려움이나 힘든 일에 매이지 않고 감당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 별것 아닌 것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사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만이나 원망을 품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삶이 불행해 집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도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길에서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좋다’,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할 때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는 고백 보다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만 깊이,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나고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일을 내다보고 긍정적인 말과 기도를 하는 습관을 키워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생각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고백하고 사는가 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힘들다’ 말하기 보다 믿음으로 "감사하다. 좋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살기를 매 순간 작정해 봅시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후 1 시 <i>1:00 P.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i>	510-415-0671	timjdsn@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